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금융감독원 2021.08.01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시행되는 신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함. 보험회사는 동 사례를 활용하여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 공시해야함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2021.08.03

금융감독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에 대한 5가지 오해와 진실을 공지함. 금융감독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의 과장광고 및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보험사기 등에 따른 공사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2021.07.29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부적절한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대응방안 등도 강구함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2021.07.29

금융권 협회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금융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소비자 편의와 소비자 보호를 조화한 적요정보 제공방안 및 과당경쟁 우려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소비자의 실질적 정보주권 행사를 위한 알고하는 동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보건복지부 2021.07.30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힘.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02%로, 4인 가구 기준 512만 1,080원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임

입법
자료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1.07.29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가입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풍수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고,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2인 2021.08.02

인구 고령화 및 코로나19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여건이 악화됨. 또한 이용급여·등급별 본인부담 차등화가 필요하나 일의적으로 규정된 조항에 의하여 한계가 존재함.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의 정비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건전화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해외
자료

2021년 상반기 보험업 세전 영업손익 발표

대만(FSC) 2021.07.29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보험업 세전 영업손익은 2,714억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8.5% 증가함. 생명보험업 및 손해보험업 세전 영업손익은 각각 2,592억 대만 달러 및 122억 대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5.9%, 54.4% 증가함

Risk Dashboard: European insurers' risk levels remain broadly stable

유럽(EIOPA) 2021.08.02

EIOPA는 Solvency I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2021년 1분기 위험 대시보드를 발표함. 유럽 보험회사는 높은 수준의 거시적인 위험에 처한 반면, 다른 타 위험 범주는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Stress testing insurers during COVID-19: results and key learnings

호주(APRA) 2021.08.03

호주 APRA는 2020년 보험회사를 상대로 수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함. 그리고 호주의 보험회사가 경제 침체 상황을 견딜 수 있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함